

벤처패자부활제 두 번째 수혜자 탄생

- 나노모션테크놀로지(대표 김상조) 3억원 보증지원
- 기존 부채 상환연장에 일부 탕감까지, 부활기반 마련



협회(회장 백종진)는 지난 27일 벤처재기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경영재기추진제도(일명, 패자부활제)의 두 번째 수혜자를 '승인' 하였다. 대상은 리니어모터 전문생산 벤처기업 나노모션테크놀로지(대표 김상조, 38세)로 기술보증기금의 사업성 평가와 법무/회계법인의 도덕성 평가를 거친 후 재기추진위원회의 면접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승인' 받았다.

나노모션테크놀로지는 모든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3억원의 지원보증을 받게 된다. 더불어 기존 채무에 대한 상환연장과 일부 채무를 탕감받게 되어 재기의 터전을 확고하게 마련하였다.

나노모션테크놀로지의 김상조 대표는 1998년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 첫 창업을 시작해 3년만에 쓰라린 패배를 맞보았다. 이후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서며 2005년 벤처재기지원제도에 도전하였으나 사업성

평가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고 2년여 준비 끝에 다시 도전하여 '승인'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김 대표는 면접평가에서 "재기지원을 통해 보증을 받게 되면 공장을 겸비한 사무공간을 넓혀 리니어모터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라며 "올해 모터생산을 중심으로 매출 30억 원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재기추진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협회 전대열 부회장은 "나노모션테크놀로지는 거듭되는 실패를 무릎 쓰고 재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 특히 본 제도를 활용하고자 2년여에 걸친 준비와 도전을 했다. 그만큼 재기노력이 강렬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노모션테크놀로지는 노래반주기, 리니어모터에 이어 최근 자기부상모터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자기부상모터 관련 기술을 이미 여러 개 개발해 놓은 만큼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본 제도는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건이 사업성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절차는 신청, 서류평가, 사업성평가(기보), 도덕성평가(법무/회계), 최종평가(재기추진위원회)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승인' 받아야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 방위사업청 간 우수벤처 및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협력체계 구축

협회 백종진회장은 국방분야 우수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 · 방위사업청(청장 이선희)간의 공동협약 체결식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벤처업계의 소망을 전달하였다. 지난 4일 육군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국방R&D에 참여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지원하게 됨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양청간 MOU체결식에 업계 대표로 참석한 백종진 회장은 "그동안 벤처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국방분야의 진출함에 있어 이번 양청간 협력이 반갑기 그지없다"며 "협회차원에서 우수한 벤처의 제품이 국방분야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기관이 체결한 MOU 주요내용은 ▲ 중소기업의 국방사업 참여기회 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방안 강구 ▲ 중소기업의 국방R&D사업 참여 확대 ▲ 신시장개척 및 해외진출 공동협력 지원 ▲ 방위산업분야 하도급거래 개선 추진 ▲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공동 실태조사 및 공동 협력체널 구축 등이다.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은 이번 공동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우선 중소기업의 군수분야 중소기업의 R&D참여 지원을 위하여 각각 50억 원씩 Matching으로 100억원을 조성, 군수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사업화에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미(美)연방 조달시장 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파견하는 미(美)시장개척단('07.7.8~14, 16개 업체)에 방사청에서 추천한 데크(항공기부품)등 5개 업체를 참여시켜 미 국방성관계자와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대하여도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방산분야 대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도급 실태에 대하여도 합동조사(8~11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청은 중소 · 벤처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 중기간 경쟁입찰시 장갑, 피복류 등 공동수급체 참여허용 및 공동수급체에대한 기점기준 등 제도 개선 추진 ▲ 방사청 납품계약 체결 중소기업 공공구매론 지원 확대 ▲ 혁신형 중소 ·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구매(381억 원) ▲ 민 · 군 겸용기술개발 제품의 내수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방분야 우수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협회 임시총회 개최

-시골의사 박경철씨의 초청강연도 진행

협회는 지난 6월 28일, 협회 대강의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협회 정관개정 및 임원선임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협회의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정관 조문 삽입 및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협회 고문 선임건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협회 백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기 벤처시대’를 맞이하여 협회 회원사와 함께 명실공히 벤처 공영의 성장시대를 열어가자”며 회원사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벤처아카데미의 월례 교양강좌도 이날 정기총회 전에 치러져 많은 회원사의 호응을 얻었다. <시골의사 박경철의 블루오션>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초청강연은 안동 신세계연합병원 원장이자, 투자전문가, 칼럼리스트로 활약 중인 박경철 원장이 맡았다. 그는 이날 강의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벤처기업인들이 눈을 떠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시종일관 활기찬 강의를 진행,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과 함께 벤처 경영자문 모색



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이하 전경련)와 함께 27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전직 대기업 CEO출신으로 구성된 중소기업경영자문단이 벤처업계의 ▲기술 ▲경영전략 ▲마케팅 ▲자금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자문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이 지난 5월부터 실시해 온 협약기관 10개사 순회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 협회 백종진 회장, 전대열 상근부회장, 경영자문단 이필곤 위원장(전 삼성중국 회장),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박중선 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경영자문단 이필곤 위원장은 “국내 벤처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영능력,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마케팅 전략, 국내의 벤처캐피탈을 유치할 수 있는 자금관리

능력 등이 필수적이다”고 역설하며, 전직 대기업 CEO들로 구성된 경영자문단이 기술, 경영전략, 마케팅, 자금관리 등 4개 분야의 경영자문을 통해 벤처기업의 시스템경영과 경영혁신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협회 백 회장은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중소벤처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이러한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협회와 전경련 경영자문단은 첫 번째 사업으로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입주업체 30개사의 ‘인큐베이팅 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1:1 맞춤형 경영자문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협회 1,50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경영자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유일 벤처CEO의 맞춤 교육, 제3기 벤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국내 벤처 CEO들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계된 벤처기업 경영자 특화교육과정인 <벤처 최고경영자과정 3기>가 3일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이금룡 전 이니시스 대표의 ‘사업가의 길’이라는 특강과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올 3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14주에 걸쳐 열린 3기 벤처 최고경영자과정은 엄선된 강사진 및 교육커리큘럼과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준 벤처CEO들의 열의로 그 어느때보다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수료패 전달 및 우수 수강자 포상 등이 이뤄졌다. 또한 1기 회장 변상운 데이웍스앤웨브 대표와, 2기 회장 이택금 엘엔텍 대표가 3기 수료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선물을 교환하는 등 훈훈한 동거애를 자랑하기도 했다.

앞으로 벤처 CEO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경영능력 배가를 위해 진행될 제 4기 벤처 최고경영자과정은 9월 13일에 새롭게 시작될 예정이다. 벤처 최고경영자과정에 관한 사항은 www.kova.or.kr/academy 및 협회 사업1팀 최형인대리 (02)890-0616 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정책성과 현장점검 회의 개최

- 중기특위 염홍철 위원장 협회 내방 및 회의 주관



지난 7월 19일, 협회 대강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관, <중소기업 정책성과 현장점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IT분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성과와 보완과제를 집중 점검하는 자리로, 염홍철 중기특위위원장 및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관련부처 담당자 및 협회 백종진 회장, IT벤처기업연합회 서승모 회장, 씨엔에스 김태희 대표, 누리텔레콤 조승만 대표, D&S테크놀로지 이원우 대표 포함 총 15명의 업계 대표들이 참가하여 실제 업계의 정책성과를 점검하였다.

이날 협회를 비롯한 업계 대표들은 IT상생협력에 관련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IT부품,소재분야 대중소기업 공동 R&D 지원확대 ▲IT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 ▲IT분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건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발주시 대중기 공동수주 확대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확대 ▲중소기업간 e-협업시스템 개발 보급 등을 건의하였다.

SVI, 중소기업 CEO 경영혁신 아카데미 교육 개설

협회 부설 서울벤처인큐베이터(SVI)는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중소기업 CEO를 위한 경영혁신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다. SVI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교육과정은 중소CEO들에게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경영혁신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총 4일간 진행된 교육과정은 ▲성장단계별 위기관리 ▲웹 2.0시대의 경영전략 ▲창조경영과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 (TRIZ) ▲중소기업 컨설팅 활용사례 ▲경영혁신을 위한 재무전략 수립 ▲지속적 성장을 위한 CSR 실천사례 ▲재무제표와 경영마인드 ▲중소기업 지원사책 및 활용하기 등 중기CEO들이 알아야 할 실질적인 내용위주로 구성되었으며, 30여명의 수료 CEO들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수료증도 받았다.



제1회 부산벤처경영인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사단법인 부산벤처기업협회와 부산경남여성벤처기업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봉사단체 '서두리'가 주관하는 '제1회 부산벤처경영인 윤리경영 선포식'이 오는 9월 15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벤처의 꿈과 희망을 공유하고 나눈다'는 의미를 가진 '희망(hope)나눔데이'라는 부제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수익금 전액을 중증장애인시설 건립기금에 사용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내 벤처기업 임직원은 물론이고 관련 단체장 및 부산지역 경제인인 한자리에 모이는 부산 경제인 한마당이 될 이번 행사는 오후 2시에서 저녁 9시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산벤처기업협회는 7월 18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buva.or.kr 이다.